

취임 1주년 맞은 서재홍 조선대학교 총장

‘섬김 리더십’으로 호남 최대 사학 선도

취임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등 역동적인 학교 운영을 해 온 서재홍 조선대학교 제15대 총장이 2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서재홍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취임했다. 그는 ‘화합과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뒤, 개교 이래 처음으로 획기적인 학문단위 구조개혁을 단행했으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BK21 플러스 사업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개교이래 처음

15개 유사학과 8개로 통합

학문단위 구조 개혁 단행

학교 안정화 이끌어

◇최초 구조개혁, 교육·연구·산학협력 체제 구축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개교 이래 처음으로 15개 유사학과를 8개 학과로 통합하고, 매년 학과 평가를 통해 학과 평지와 정원 감축을 하는 상시 구조개혁 체제로 전환했다. 많은 대학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구성원의 반발로 진통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총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단위 구조개혁을 이뤄낸으로써 ‘섬기는 리더십’으로 학교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32억 원을 지원받아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 학생과 신진 연구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도 6개 사업팀이 선정돼 7년간 78억 5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선정사업단 수로는 전국 22위, 사업비 지원액으로는 전국 30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재정 지원 대형국책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교育역량 강화사업), 연구 분야(BK21플러스사업), 산학 협력 분야(LINC사업)에 모두 선정돼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삼각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교육부 중점 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

학(LINC) 육성사업과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산업융합특성화 인재양성사업에 이어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BK21플러스사업에 선정돼 호남권 교육을 선도하는 중심대학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250건에 441억 원을 달하는 외부자원을 유치했으며 취업률에서도 2013년 8월 현재 취업률 52.6%로 졸업생 3000명 이상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15위, 광주·전남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지역 대학의 한계를 극복한 국제화
국제화 부문에서의 성과도 눈부시다. 국제화로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인의 조선대 동문화’라는 가치 아래 2012년 9월 22개 국 124개 대학 및 기관에서 2013년 9월 현재 30개국 161개 대학 및 기관으로 협약을 확대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의 땅’인 아프리카에 진출해 케냐,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대학 2개, 고교 2개), 인도(대학 5개) 등 신증 지역과 교류를 넓히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의 고등학교 및 직업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학술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활용한 국제화 전략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년 동안 30개 기관 및 대학과 협정을 맺었으며, 동원그룹 10억 원을 비롯해 총 32억 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했다. 특히 제3교포 의사 장황남 박사로부터 시기 50억 원에 달하는 정보통신기기 3천 600여 점을 기증받아 구 대학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황남 정보통신박물관을 내년 4월 개관할 계획이다.

◇창조 인재 양성, 지역혁신대학

서재홍 총장은 취임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미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취업률 제고 ▲타문화 이해와 봉사신정 향상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강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조성이라는 5대 핵심전략을 통해 2020년에는 국내 15위권의 지역혁신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대학 한계 넘어

30개국 161개 대학과 협약

맞춤 창조 인재 양성해

지구촌 명문사학 도약

특히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의 견학이념을 지식기반사회에 새롭게 해석해 ‘융복합 능력과 배려 역량을 갖춘 자신감을 지닌 Confidence, Convergence, Care(CCC) 조선리더 양성’이라는 인재상을 새롭게 도출하고 특성화를 통해 창조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호남 최대 사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특성화는 지역 맞춤형 산학융합교육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라는 두 개의 큰 틀로 추진한다. 지난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지역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연계 교육시스템을 완비한 바탕위에 다양한 지역 맞춤형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협장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 또 기초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교양 및 전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애틋한 애정을 가진 자신감 넘치는 조선대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에 개교 70주년을 맞는 조선대학교는 창조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해 2020년에 국내 15위권의 지역혁신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여상 전국상업경진대회 제3회

금·은·동 등 29개 메달획득
금융회계 특성화고로 우뚝

금융회계 특성화고인 광주여성이 제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월등한 실적으로 전국을 제패했다.

광주여상은 교장 나정식(33)은 23일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금상 11개, 은상 5개, 동상 10개, 특별상 3개 등 총 29개를 수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여상은 광주지역 예산을 거쳐 선발된 광주대표 58명 가운데 33명이

출전해 정주연(2년)·노진아(1년) 양이 비즈니스영어부문에서, 이지원·안예닮(2년) 양이 금융실무에서, 김예림·김주희·주은지·이지아(2년) 양이 경제기본법에서, 성서영(2년) 양이 정보활용능력에서, 박지영(2년)·오승주(1년) 양이 창업아이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둬 금상 11개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상업교육학회·대한상업교육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

도별 예선을 거친 1405명이 참가해 회계실무·금융실무 등 11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나정식 교장은 “광주여성이 총 74개 금상 가운데 11개를 거머쥐어 전국 최정상 상업계 특성화고임을 입증했다”며 “금융기관은 물론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 취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대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BI 운영기관으로 선정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이동렬)가 올해 하반기 ‘BI(창업보육센터) 보육역량강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3년 BI 보육역량강화 하반기 사업은 지난 5월 선정된 BI 보육역량강화 사업과 별개로 입주기업의 제품화자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적으로는 80개 기관이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입주기업의 제품디자인 개발과 제품설계, 목업(실물구조 모형) 제작, 시작금형 제작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상반기 2013년 BI 보육역량강화사업

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입주기업의 창업교육과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렬 창업보육센터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입주기업의 지원을 늘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이공대 총동창회

조선대병원과 업무협약

6만여 동문에 의료서비스

조선이공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송시열)는 최근 조선대병원(병원장 민영돈)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조선이공대학교 총동창회 6만 3176명의 동문과 가족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질병관리를 위해 한



단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조선이공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개교 50주년을 맞

는 총동창회 회원들의 건강은 물론 회원 간 결집과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 원이고
투자기간은 10개월 정도이고
투자금은 1억 원 이상입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 3.25% 이하, 연 39% 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도

농분/쓸분!
친절상담
010-3605-5000

금당공인증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장로5가 버스도로접 대지 777m²(235) 공시지가 17억 7천
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 6천

• 북구 유통 상업지역 대지 411m²(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
가 2억 8200 매도 3억

• 험평 일업 절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504평, 땅에는
생활주거적합 대출 4억 매도 10억 5천

• 북동 고용센터 옆 상업지역 164평 원룸 적합 1억 6천

• 계림동 구호텔건물 대지 542m²(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
병의원·한의원·사옥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 접 상업지역 786m²(238) 오피스텔·생활주
택 등 적합 9억 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m²(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준 12억 2천 원. 대출 9억 8천 원

• 매도. 목포대학 입구 원룸 84개 허가난 당 476평 목포대학
학정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 9억 8천 원 매도 6억 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슬로시티증도·월드리조트 가는길. 바다
가 보이는 별장형 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 2세대 41평 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 가능. 30평은 1
억 3900만 원 41평은 1억 8500만 원. 임대도 가능.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 167m²
(50) 보증금 5천 원에 월 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 가능

• 임대. 쌍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
주택 10평형 기준 전세 1000만 원 월 40선에 임대함. 10월초 첫
입주 지하철 쌍촌역에서 6분 거리

• 임대. 쌍촌동 가도건설의 주택전시관 70평 PC방·미장원·찻
집·식당 등 다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
원 월 200선 가능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仲介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군원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동구 지사동 준주거 3층 근린 대지 241m² 건평 307m²

김정기 4억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 1760m² 건평

2821m² 김정기 14억 최저가 26억

△ 니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 545m² 건평

2309m² 김정기 13억 최저가 7억

단독주택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 763m² 건평 137m²

김정기 1억 8천만

△ 북구 운암동 2층 단독주택 대지 149m² 건평 161m<sup